기독교교육논총 제63집 (2020. 9. 30): 39-64
DOI: 10.17968/jcek.2020..63.002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김성중(장로회신학대학교/조교수)
newant99@gmail.com

한글 초록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확산, 주춤과 재확산 등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 힘들게 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현장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 온라인예배가 시작되었고, 현장예배가 시작된 교회도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경우에는 교제와 교육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대부분 온라인예배에 비중을 두며 주일예배만 어렵게 드리고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 이슈, 팬데믹 상황이 되었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 2020년 3월에는 4월이 되면 나아지겠지, 4월에는 5월이 되면 나아지겠지, 5월에는 6월이 되면 나아지겠지, 6월에는 7월이 되면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많은 교회의 대처는 2020년 상반기에 계획해 놓은 사역을 하반기에 연기한 것 정도이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 이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 논문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 방향의 이론적 기반을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 카테키시스 이론, 디아코니아 이론에서

*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찾았고 이 이론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연환경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가족 구성원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세계 시민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시했다. 그리고 카테키시스 이론에 근거해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기독교교육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섬김의 기독교교육을 제시했다.

《 **주제어** 》

코로나19, 만남, 카테키시스, 디아코니아, 방향

Ⅰ. 들어가는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 성 우한 시에서 처음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 그 이후 급속도로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포했다”(두산백과,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1번 신천지 소속 확진자가 슈퍼전파자임이 밝혀지면서, 확진자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0,000명을 훌쩍 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실천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2020년 5월 초에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2020년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생활

방역으로 정부 시책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상이 회복되는가 기대했지만, 이태원의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소강과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제대로 못 가고, 계획한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이 분노로, 분노가 우울로 발전하는 "코로나 우울증(Corona blue)"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이순용, 2020. 5. 13).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는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라인예배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문화와 신앙의 기준들은 성찰할 기회도 없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주일성수"의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고, 온라인예배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오히려 기독교인조차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현장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주중 소그룹 모임과 교제, 교육, 교회가 하는 봉사활동과 선교도 멈추게 되었다.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가 초대 기독교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목회적 소명과 기능으로 제시한 5가지(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중에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코이노니아(친교와 교제),"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는 멈추게 되었고, "케리그마(말씀의 선포와 전도)"는 설교를 통해서 일부만 시행되고 있고, "레이투르기아(예배와 예전)"도 성찬식과 같은 예식이 빠진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2001).

이러한 혼란한 상황이 발생 된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외적 요인이 강력하게 빠르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부흥기가 아니라 하락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체계적으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과 에너지,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시기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 방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 방향의 이론적 기반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이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기반이 되어주는 이론으로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과 카테키시스 이론, 디아코니아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에 대한 갈망, 만남에 대한 정신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이단의 민낯이 드러나고 전국적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이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 카테키시스 교육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진 꿈과 야망이 아닌,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며,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워져야 하기에 디아코니아 이론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철학이 되어야 하는 이론은 바로 만남의 이론이다. “만남”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

이 되어야 한다. 만남의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나와 너”와 “나와 그것”이다. “나와 너”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상생의 관계, 상호적인 관계이다. 물론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만 한정 짓는 것은 아니다. “나와 너”의 관계 안에는 자연도 들어갈 수 있고, 신 관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용수, 1994, 38-39).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용과 지배, 소유의 관계이다. 즉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한쪽이 상대방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상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슬픈 현실은 “나와 너”의 관계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최한구, 1992, 67).

만남의 기독교교육이론가인 루이스 쉐릴(Lewis Sherrill, 1955)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불완전함이 있는 “실존하는 자아”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즉 사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적 자아”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용수, 1994, 207-208).

기독교교육학에서 관계신학을 강조한 랜돌프 밀러(Randolf Miller, 1950)는 종교적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구속의 공동체”를 강조한다. 진정한 공동체의 전제는 신뢰이며, 제일 먼저 그 신뢰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고용수, 1994, 178).

기독교교육에 있어 대화의 원리를 강조한 루엘 하우(Reuel Howe, 2000)는 대화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전제될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 추구하는 만남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가능적 자아”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만남이요, 신뢰의 관계에서 공동체 형성을 기대하는 만남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대화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의 전제는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나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사랑이고, 희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희생하시는 사랑이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원수까지 품으시는 사랑이다.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논할 때 필요한 이론은 바로 아가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인 것이다.

2. 카테키시스 이론

“카테키시스”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교리와 지금까지 유지하고 발전되어온 전통을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기독교인으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고용수, 2003, 139). 카테키시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는 성경의 텍스트, 기독교 전통, 현재의 삶이다. 지금 시대와 다른 성경의 텍스트와 기독교 전통을 해석하는 것이 카테키시스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성경의 텍스트와 기독교 전통의 내용을 현대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즉 성경의 텍스트, 기독

교 전통과 현대 우리의 삶 사이에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Osmer, 2007).

따라서 카테키시스에 있어서 핵심은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주셨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성경의 1차 독자, 1차 수신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의 메시지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체계화된 기독교교리(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인간, 죄, 십자가, 부활, 은혜, 믿음, 구원, 세례, 성찬, 교회, 종말 등)를 학습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나온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카테키시스는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어떠한 내적, 외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카테키시스에 대한 강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단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상황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이단에 현혹되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단에 있던 자들이 빠져나와서 정통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디아코니아 이론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 1997)는 초기 기독교로부터 내려온 목회적 소명의 하나로 "디아코니아"를 언급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디아코니아를 "공동체의 모든 범위의 섬김과 봉사활동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176).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교회 공동체 안과 교회 공동체 밖의 섬김과 봉

사활동을 모두 포괄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 디아코니아는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신자의 사회책임이다”(이금만, 2002, 220). 이를 통해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의 안위와 이익,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의 선”을 바라보게 된다(김정희, 2019, 125).

디아코니아에 대한 성경적 근거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가진 것 나눔, “손님에 대한 호의, 식탁 봉사, 가난한 사람 구제” 등으로 나온다(이금만, 2002, 216).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34-35절이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기독교공동체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서 서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박해 시기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다. 네 번째, 신명기 24장 19-21절이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구약 율법에는 약자보호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신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본받아 힘들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이다.

디아코니아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Harris, 1997, 179).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Harris, 1997, 180). 둘째, 겸손한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최성훈, 2014, 431). 셋째, “삶을 통한 실천”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것처럼 디아코니아에 있어서는 삶을 통한, 삶 속에서의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성훈, 2014, 431).

디아코니아의 영역은 첫째, “사회적 돌봄”이다. 사회적 돌봄은 사회적 약자를 품고 그들을 수용하고 섬기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의식”이다.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돌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의식, 사회적 돌봄에 적대적인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행진이나 사회적 돌봄을 위한 캠페인이나 퍼레이드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능력 부여”이다. 사회적 능력 부여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입법”이다. 사회적 입법은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가 나오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Harris, 1997, 180-189).

디아코니아 이론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더 나아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Ⅲ.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위에서 살펴본 “아가페적 만남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연환경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가족 구성원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세계시민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을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카테키시스 이론”에 근거해서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을 기독교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기독교교육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섬김의 기독교교육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독교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1. 자연환경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윤철(2020, 31-32) 교수는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무서운 전염병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세균의 생태계를 교란한 후 사람과 병원균 사이에 새로운 생태학적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이동과 교류, 농경지의 개간, 벌목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생태학적 균형의 교란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인간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면, 자연환경은 “새로운 적응과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한 여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홍윤철, 2020, 41).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원죄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을 “나와 너”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이용의 대상인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치러야 하는 무서운 대가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생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로 자연환경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자연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자연과 상생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의 평화를 원하신다. 종말론적 비전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세계이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11:6-9).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환경 교육,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지켜가는 가운데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생지 사용하기, 자전거 타고 교회 오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지붕 설치하기, 환경 주일 지키기 등이 있다.

2. 가족 구성원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장예배가 힘들어지고 온라인예배가 일상화되면서 목회자와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보다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녀들의 경우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고, 부모의 일터 현장의 경우에도 100% 재택근무 하는 회사, 탄력적 재택근무 하는 회사, 한 달에 반만 출근하는 회사가 많아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신앙교육의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신앙의 기준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 등은 지앤컴리서치-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20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온라인예배를 드린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예배의 긍정적인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고 답했다(이인창, 2020).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실제적으로 연계해서 기독교교육을 시행할 때가 왔다. "교회만이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과 맞물려 가정을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신승범, 2016, 298).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신앙의 멘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나야 한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강압적인 교육, 율법주의적 교육이 되고 만다.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전수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된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신앙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3. 세계 시민 간의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증상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 185개국에 확진자는 5,016,844명에, 사망자는 330,328명이 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20). 불과 5개월여 만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고, 5백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화가 이미 이루어진 지구촌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는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다. 세계는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바이러스 확신을 막기 위해 자국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 유럽연합이 깨지고 있고, “유럽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인 “셍겐협정(Schengen Agreement)”이 깨지고 있다(두산백과, 2020). 세계 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서로의 힘을 과시하며 갈등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화는 역행해서 “배타적 민족주의, 극우적 포퓰리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걱정스럽게 예측하고 있다(임진희, 2020). 세계화에 역행하는 폐쇄적 경제가 강대국 중심으로 진행되면 사슬같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제조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게 될 것이다(임진희, 2020).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세계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세계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세계 전역에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100종이 넘고, 백신 개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벌써 수백억 달러가 넘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백신 개발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나 가능하고, 가난한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자국민 우선주의가 된다면, 선진국에 사는 국민들만 혜택을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 공공재로 쓰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세계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 5월 초에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백신개발 및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74억 유로(약 10조 원)의 기금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김윤종, 2020).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인류는 국수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한지연, 2020). 물론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교수는 글로벌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답을 말하고 있다. 글로벌 연대는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세계 시민 간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신적 만남의 연대, 그리고 세계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실제적 만남의 연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독교교육 안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복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나와 있다. 평등을 지향하는 복음 교육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인은 동등하고 서로 존중받아야 하며, 복음 안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신적 만남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외국인이 한국으로 결혼이민이나 취업, 그리고 북한 주민으로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모든 자들”)과 지속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 만남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박미라, 2011, 244).

4.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바로 온라인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사회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예배가 진행되면서 교회마다 촬영 및 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를 실시간 혹은 녹화 중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설교를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 편집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경우는 내용과 형식 중에서 형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형식이 자신들의 문화와 기호에 맞아야 내용을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즉, 목회자의 설교의 경우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를 담는 그릇인 전달의 형식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 형식이 자신들의 문화와 기호에 맞아야 내용을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설교 영상의 형식적인 측면 (편집이 잘 되었는지, 영상 화질이 좋은지, 다양한 이미지나 자막, 부연 자료가 영상 가운데 나오는지 등)을 따지게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문화의 수준과 기호에 맞으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용보다 형식이 우선인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형식을 온라인설교뿐만 아니라, 공과 교육에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중 큐티 영상을 제공해주어야 하고, ZOOM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쌍방향적인 온라인 소통을 해야 한다. 즉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을 단지 편리하고자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형식적으로라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온라인 사용이다. 기독교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 온라인에 대한 입장은 온라인도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장이며,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교육에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목회자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따뜻한 만남, 학생들

사이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목회자가, 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인데, 이 능력을 목회자와 교사들이 갖추기 위해 목회자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교회에서 연례행사로 으레 해오던 교사교육의 주제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주제로 파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네이버사전, 2020). 이제는 교육 내용,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주제보다는 영상촬영과 편집기술, 유튜브 안에서의 PPT 활용,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과 같은 교육의 형식적인 부분에 관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관심 없는 아이들, 공과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신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5.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기독교교육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번지게 된 계기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 지파 대구교회 예배에 출석한 이후부터였다. 이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신천지 교인이 전국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에서 정부에 제출한 신천지 교인 숫자는 무려 “24만5천605명(국내 21만2천324명, 해외 3만3천281명)”이나 되고, 교육생은 “6만5천127명(국내 5만4천176명, 해외 1만951명)”이나 된다(홍준헌, 2020).

뉴시스에서 종말론사무소 윤 소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신천지 건물은 전국에 “1529개(성전 72개소,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선교센터 306개소, 사무실 103개소, 기타 1048개소)”나 된다(남정현, 202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의 유혹에 기존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기독교교육은 카테키시스 교육이다. 한국교회는 예배 안에서의 설교, 큐티식 성경공부, 개인 경건 위주의 기도를 통한 신앙교육은 강조해 왔지만, 정작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리 교육은 소홀히 해 왔다. 카테키시스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회가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역사와 지켜온 전통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 카테키시스 교육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복음의 체계적인 교육이 핵심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에서 반드시 강조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카테키시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교단은 카테키시스에 기반을 둔 명확한 내용의 교재를 연령대별로 만들고,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철저한 성경공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삶에 적용을 위한 큐티식 성경공부가 아니라,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찾아내는 성경공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공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중심내용을 모르는 것이고, 신실한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알고 싶은 갈급함을 가지고 살다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6. 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기독교교육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가장 수고하고 고생한 분들은 바로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고, 확진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감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일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곳에서 봉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0년 5월 7일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세계 간호사가 9만 명에 달하고, 약 26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다(양소리, 2020).

이들의 봉사와 희생의 모습은 바로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사회 안에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봉사와 섬김의 실천 교육이 기독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는다. 봉사와 섬김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의 전 구성원이 교회 안의 모든 분야에 1인 1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인 1 봉사의 필요성을 교육하며, 1인 1 봉사 영역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은 주민 센터나 구청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 봉사와 섬김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을 뛰어넘어 미자립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봉사수련회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집중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교육의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7.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섬김의 기독교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빅 데이터이다. 빅 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빅 데이터이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전파사용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한다. 이것이 데이터의 힘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확진자와 만난 대상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 제작하는 회사,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다. 우리가 검색엔진을 통해 가고 싶은 식당, 탐방하고 싶은 장소, 사고 싶은 물건, 관심 있는 인물 등을 검색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데이터 기반 회사가 가지고 있다. 즉 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 기관, 조직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이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는 “그냥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품종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고, 빅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을 추구하게” 된다(최진기, 2019, 125). 이렇게 본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정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인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인문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최진기(2019, 126)는 주장한다.

조직 안에서 데이터는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조직 구성원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모적인 활동들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적절한 자금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조직의 목표와 비전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미래의 실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김성중, 2019, 97-98).

조직 안에서의 데이터의 종류에는 첫째, 조직 구성원의 인적사항,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가 있고, 둘째, 조직 구성원이 조직 환경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식데이터가 있고, 셋째, 조직 구성원의 학습과 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한 학습데이터가 있고, 넷째, 조직 구성원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데이터가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데이터에는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전략, 투자시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다(김성중, 2019, 98-100).

이렇게 조직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교회 안에서 수집되고 저장되고 관리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준은 어떠한가? 교회 안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의 종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정도라고 판단된다. 즉, 교인들의 인적사항 정보(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가족관계 등)와 신앙생활 정보(세례 유무, 직분, 소속 남(여) 전도회, 심방내역, 봉사 사항, 헌금 사항, 기도 제목 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상황 등, 지역 주민들의 특징이나 기호, 관심, 어려움 등의 데이터도 인구통계학적인 데이터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외에 인식데이터, 학습데이터는 거의 없고, 아주 적은 수의 과정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인식데이터, 학습데이터, 과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 데이터와 통계를 공부한 데이터 관리 전문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경우에도 부장교사들이 데이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데이터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교육이나 교사대학의 주제에도 데이터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좋은 행정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행정이다. “합리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는 “이성적,”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감성적”의 반대로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는다는 뜻이다. 좋은 행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이라는 말 안에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김성중, 2019, 9-11). 구성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이러한 섬김의 행정을 위한 도구는 반드시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데이터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Ⅳ. 나가는 말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역사는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로 나뉠 것이라고 말이다. 그만큼 코로나19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과도 확연히 다를 것이다.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할 줄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는 동안 교회의 목회를 성찰한다면 온라인예배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소홀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이 필수적인 교회학교의 경우에는 빠른 대안이 마련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에 세웠던 2020년 상반기 계획을 하반기에 미뤄놓는 정도의 대처를 했는데, 2020년 하반기인 현재에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기독교교육을 구상하고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기, 이단의 유혹이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다가오는 시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필요가 요구되는 시기,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본 논문은 이에 발맞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본질에 강조를 두지만 시대 상황에 맞는, 학습자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고용수 (1994). **관계이론에 기초한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고용수 (2003). **현대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2010).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김성중 (2019). **기독교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민영사.

김윤종 (2020. 5. 15.). 사노피 "백신, 거액 지원 美에 우선 공급" 언급에…마크롱'격노.'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20200515/01063 826/1에서 인출

김정희 (2019).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효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60, 121-151.

남정현 (2020. 2. 27.). 신천지 "교육생 7만여명 명단 넘길 것"…"신천지 건물도 공개하라" 주장.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27_0000935142&cID=10701&pID=10700에서 인출.

네이버사전 (2020). 디지털 리터러시.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c5b9a1252f9431a96706350cacfeb9c에서 인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2001).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교육과정 이론지침서(Ⅰ)/이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두산백과 (2020). 셍겐협정 (Schengen Agreement). **Do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2029&cid=40942&categoryId=40105에서 인출.

두산백과 (2020). 팬데믹 (Pandemic). **Doopedi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6271&cid=40942&categoryId=32745에서 인출.

박미라 (2011). 다문화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교육-기독교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7, 243-270.

신승범 (2016). 부모, 신앙교육의 주체인가? **기독교교육논총,** 48, 293-319.

양소리 (2020. 5. 7.). "전 세계 간호사 260명, 코로나19로 사망…9만명 감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7_0001016201&cID=10101&pID=10100에서 인출.

이금만 (2002). 디아코니아 영성교육방법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 215-240.

이순용 (2020. 5. 13.). 코로나블루, 불안→분노→우울로 발전, 서로 합쳐 헤쳐 나아가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7446625768592&mediaCodeNo=257&OutLnkChk=Y에서 인출.

이인창 (2020. 4. 13.). "온라인 예배 참석" 61%, "끝까지 시청" 86%. **기독교연합신**

문.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29에서 인출.

임진희 (2020. 5. 15.). 코로나 위기, 한중 협력으로 해답 찾아야.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51545021406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에서 인출.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현황.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에서 인출.

최성훈 (2014).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명한 기독교교육의 원리. **기독교교육논총,** 40, 421-447.

최진기 (2018).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서울: 이지퍼블리싱.

최한구 (1992). **마틴 부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한지연 (2020. 3. 21.). 유발 하라리 "한국, 코로나 대응 성공사례…전세계 연대해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115510322957에서 인출.

홍윤철 (2020). **팬데믹**. 서울: 포르체.

홍준헌 (2020. 2. 28.). 신천지 "교인 명단…'마녀사냥' 우려에 어렵게 제공."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22815195526759에서 인출.

Harris, M. (1997). **회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9 출판)

Howe, R. L. (2000). **대화의 기적**. 김관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1963 출판)

Miller, R. C. (1950). *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Osmer, R. (2007)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신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5 출판)

Sherrill, L. J. (1955). *The gift of power.* New York: Macmillan Co.

Abstrac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Sung-Joo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OVID-19 is sweeping the world, and it is in crisis in all aspects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religion. As people experience the beginning and spread of COVID-19, wince and re-spread, the people are living in anxiety and depression. Because of the COVOD-19 crisis, Korean churches were unable to provide on-site worship, and online worship began, and churches that started on-site worship also performed online worship. In the case of church schools, the functions of fellowship and education were paralyzed and many are offering online Sunday service only. Many people eagerly want to go back to what it was before COVID-19, but it seems difficult because COVID-19 has become a global issue and a pandemic situation. We can't wait to get better out of this. In the COVID-19 crisis, the church was unable to properly handle the church's original work and to fully fulfill the mission of education. The response of many churches was to postpone the planned ministry to the second half of 2020. Now, we should try to set a new direction and prepare specifically to move in the new direction.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tudie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Specifically,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was found in the theory of Agape's encounter, Catechesis theory, and diakonia theory, and

specific direction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se theories. Specifically, based on the theory of Agape's encounter, Christian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encounter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Christian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encounter among family members, Christian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encounter among citizens of the world, and Christian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encounter through online were presented. Based on the Catechesis theory, Christian education copping with the attack of heresy was presented. Finally, based on the diakonia theory, Christian education of service for society and Christian education of service based on data were presented.

《 Keywords 》

COVID-19, Encounter, Catechesis, Diakonia, Direction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